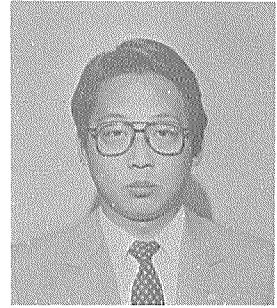


'91년도를 보내면서



곽정소 / 본회 비상근 이사
한국전자(주) 사장

지난 한해 동안 우리와 많이 친숙해진 단어가 있다. 신문, 잡지, TV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선진국병이 그것입니다.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생략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과소비 풍조의 만연, 근로의욕의 저하, 향락퇴폐문화의 성행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무역수지적자가 100억불에 육박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0%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의 탈피에서 시작하여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상당한 정도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룩, 복지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성장을 하다보니 균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불균형 성장을 지속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었는데 이 노동력의 활용으로 한국상품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높은 임금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의 칼이 무디어져 버렸

습니다. 높은 임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과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고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력이나 기술력 그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뒤에는 중공과 아세안 국가들이 쫓아오고 일본과 구미 각국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분야와 연구개발 투자에 힘써 좀더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상품들은 지금까지는 외국시장에서 세계의 상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우리의 시장이 세계시장에 개방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품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후진국의 제품들도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선진국들의 첨단 기술 이전 기피와 함께 엄청난 기

술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일간의 기술특허분쟁의 폐해가 일부 부품의 의존도가 심한 국내전자업체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자산업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바로 전자산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부진과 확대되는 지역경제권의 심화 등 외부요인과 인력난, 자금난 등 내부요인이 겹쳐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음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세계경제의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대고객 서비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근로자는 장인정신으로 정부는 봉사정신으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92'년은 선진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